

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고찰

박희석 연구위원 · hspark@sdi.re.kr

한진아 연구원 · cycle13@sdi.re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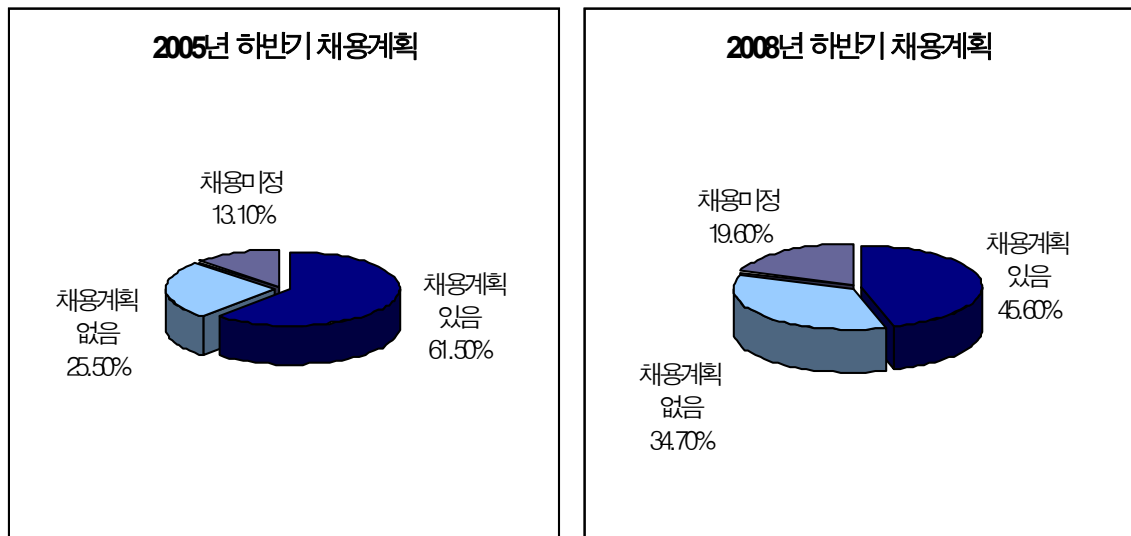
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

I. 취업환경 변화와 청년실업 현황

1. 청년층의 취업환경 변화

-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나 경기회복으로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임. 그러나 최근 고유가와 미국의 금융위기로 국내외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청년실업이 또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
- 경기침체는 기업들의 경영난 악화로 이어져 신규채용 억제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경력직 또는 전문직에 비해 청년실업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발전되는 등 경기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(2002년~2008년 기간 중 전체실업률은 평균 3.5%인 반면 청년실업률의 평균은 7.7%인 것으로 나타남 <그림1>참고)

- 유가 및 물가상승이 지속되어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하반기 채용규모가 전년대비 2.1% 감소 할 것으로 조사됨
- 하반기 채용에 나서는 기업은 596개 상장사 중 절반에 못 미치는 45.6%로 2005년(61.5%)과 비교하여 신규채용 비율이 15.9%p 감소. 이는 가장 낮았던 2006년(49.7%)보다 4.1%p 감소한 수치로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



자료: 2008년 하반기 채용전망, 인크루트

<그림 1> 2008년 하반기 기업의 채용 전망조사

- 하반기 대기업, 중견·중소 기업의 채용인원은 1만8천474명으로 전년대비 2.1% 감소, 취업 경쟁률 약 30:1
- 2008년 기준 대학졸업자 수가 550,964명이었으며 하반기 기업의 채용인원은 18,474명으로 이들의 취업 경쟁률을 환산해본 결과 약 30:1의 경쟁률일 것으로 추정됨
- 그러나 자발적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경쟁 가담을 고려하면 실제 경쟁률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
- 올해 중견·중소기업의 채용인원은 전년대비 각각 10.8%, 36.0% 감소, 대기업은 2.7% 소폭 상승

-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88%를 고용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업규모별 채용계획의 양극화 현상은 향후 전체 채용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.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고용 창출에 나설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

〈표 1〉 2008 하반기 기업규모별 채용인원 증감

(단위:명)

구 분	인원		채용규모
	2007	2008	증감 %
대기업	14,715	15,118	2.7%
중견기업	2,792	2,490	-10.8%
중소기업	1,354	866	-36.0%
계	18,861	18,474	-2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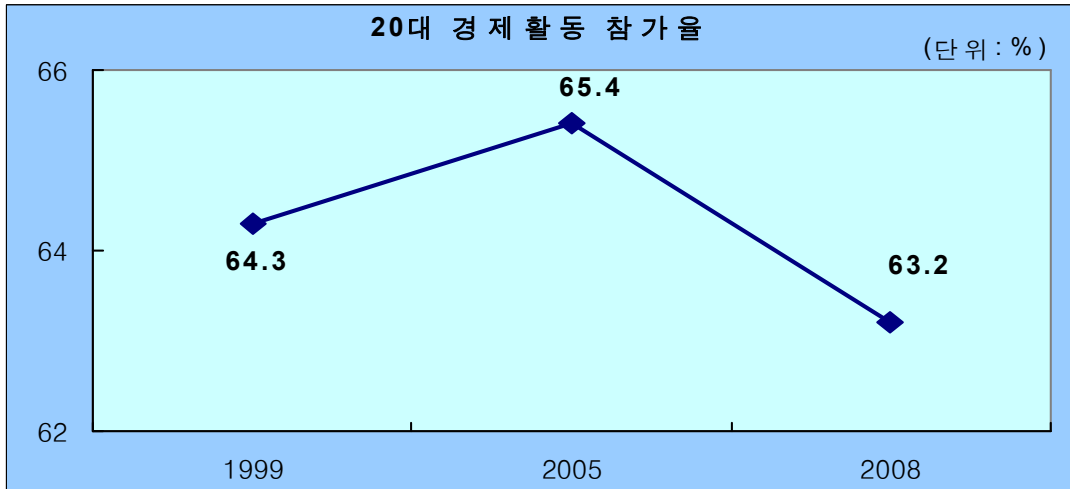
자료: 2008년 하반기 채용전망, 인크루트

2. 전국 청년실업의 현황

1) 20대 경제활동참가율²⁾

- 경기 침체 및 기업의 채용규모 축소 등의 작용으로 국내 8월 기준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63.2% 기록
-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은 8월 기준으로 1999년(64.3%)부터 2004년(64.7%)까지 64%대에서 등락 반복, 2006년부터는 3년간 연속 하락세를 보임
- 성별로는 남성이 64.4%(-2.0%p) 여성은 62.1%(0.3%p)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을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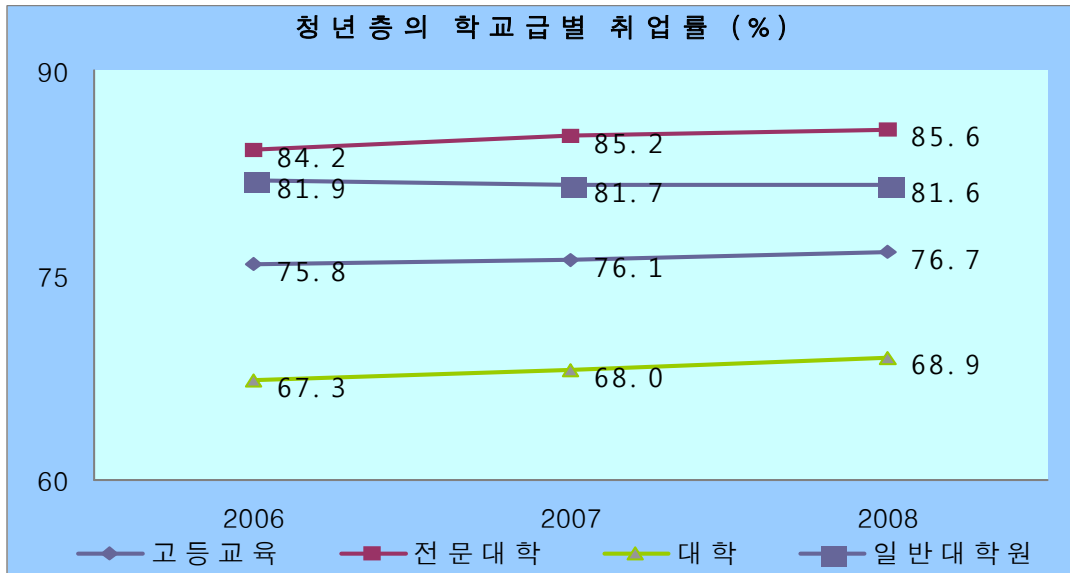
2) 경제활동참가율은 20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



자료: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, 통계청

<그림 2> 20대 경제활동참가율 추이

- 청년실업 중 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률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
- 청년실업 중 고졸 이하 실업자의 비중이 줄고 대졸 이상의 실업비중 증가, 고등교육과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대학졸업자의 취업률보다 높음
- 고등교육과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3년째 증가하여 각각 평균 81.7%와 85%의 취업률을 보이는 반면 대학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은 제일 낮은 68.1%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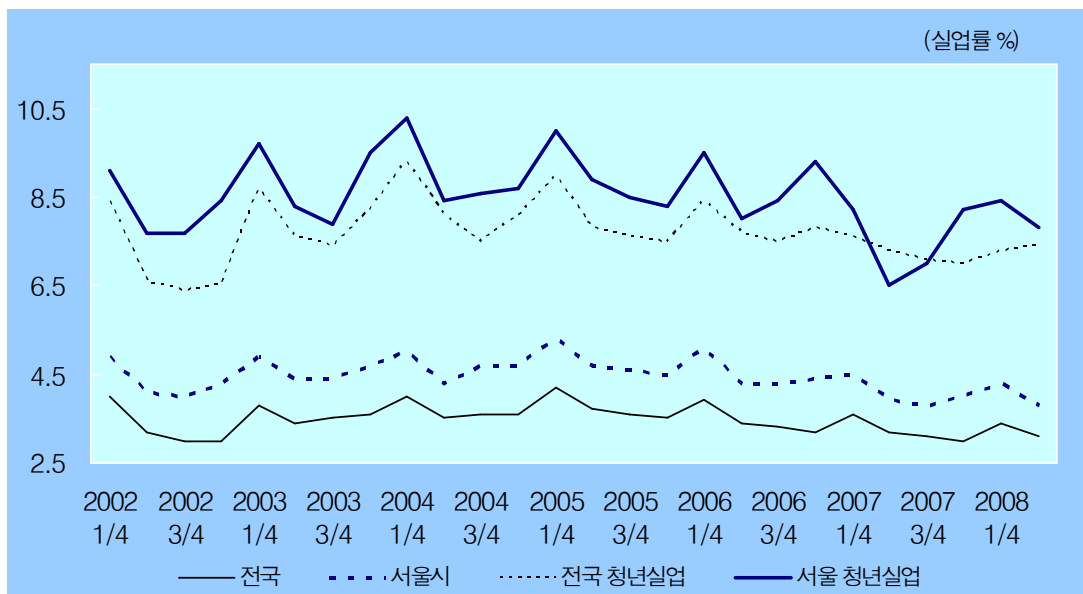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2008 취업통계연보, 한국교육개발원

<그림 3> 청년층 학교급별 취업률 추이

3. 서울시 청년실업 현황

- 서울시 평균 청년실업률은 8.5%이며 전국과 평균 1.0%p 격차 (2002년~2008년)
- 서울시의 청년실업률은 2002년 10.3%까지 상승, 2007년 2/4분기에는 전국보다 낮은 6.5%까지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올해 1/4분기에는 8.4%까지 상승하는 등 평균 8.5%대의 실업률을 나타내 또다시 청년실업률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임
- 전국의 청년실업률과 비교하면 평균 1.0%p의 격차를 나타냄. 이는 서울이 타 도시에 비해 경제활동 집중도에 따르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 필요
- 서울시 청년실업 평균, 서울시 평균 실업률 (4.0%p)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서울시 2002~2008년 청년실업(8.5%)의 평균은 서울시 실업률의 평균(4.5%)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 청년실업의 문제점이 심각하며 청년실업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서울시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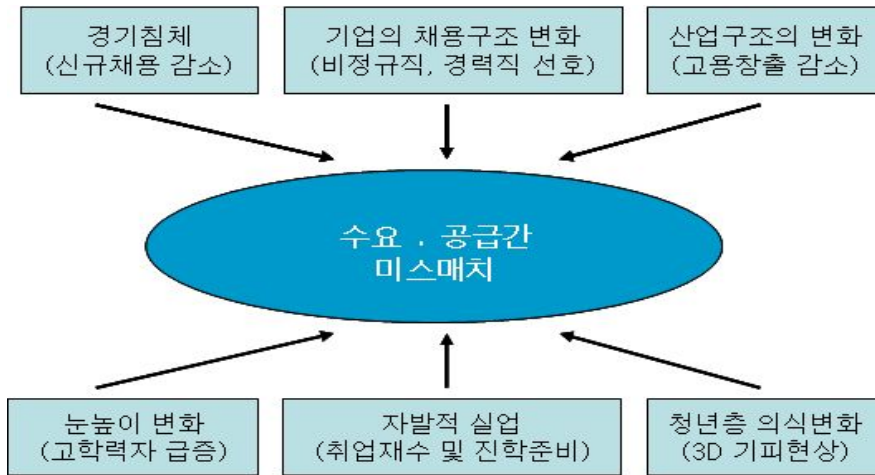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

<그림 4> 전국 및 서울의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변화추이

II. 청년실업의 특징 및 원인

- 청년실업의 종합적 원인은 수요(경기침체, 기업의 채용구조 변화, 산업구조의 변화 등)와 공급(눈높이 변화, 자발적 실업, 청년층 의식변화)간의 양적·질적 미스매치에 의해 발생



<그림 5> 청년실업의 특징 및 원인

1.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

1) 일자리 불일치

- 2004년~2008년 대졸취업자의 평균 30% 이상이 비전공분야에 취업하고 있음
- 일자리 불일치는 산업구조적인 구인과 구직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함과 학과별 정원 교과과정 등의 탄력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으로 풀이될 수 있음
- 따라서 적성, 전공지식 및 기술과 불일치하는 직업을 갖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생-학교-기업의 협동 네트워크 조성이 필요

<표 2> 대졸취업자 전공일치 현황

(단위: %)

	2004	2005	2006	2007	2008
비전공	30.5	28.6	27.4	31.1	31.4
전공	69.5	71.4	72.6	68.9	68.6

자료: 2008 취업통계연보, 한국교육개발원

2) 비정규직의 증가

- 비정규직 취업률 3년째 상승하여 18.8% 기록, 반면 정규직 취업률은 3년째 하락
- 경기침체로 기업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은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근로자보다 비정규직으로 노동수요 선호체계가 변화, 이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
-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정규직 취업률은 56.1%(28만3천여명)로 지난해보다 0.7%p 하락, 반면 비정규직 취업률은 18.8%(9만4천여명)로 지난해보다 1.1%p 상승
-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쉽게 이탈이 가능,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다시 신입인력 채용 및 업무 인수인계 등 업무환경과 능률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, 청년층에게는 잦은 직장이동과 빈번한 노동시장 유출입에 따른 경력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, 또한 사회적으로는 청년실업의 증가로 악순환 반복

<표 3> 2008년 고등교육기관 취업현황

(단위: %)

	2006	2007	2008
정규직	58.4	56.8	56.1
비정규직	15.7	17.7	18.8

자료: 2008 취업통계연보, 한국교육개발원

3) 경력직 채용 증가 및 산업구조 변화

-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, 지난해 동기 대비 경력직 채용 7.7% 증가
- 기업이 고용을 확대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신규채용 보다 단시간에 업무에 투입 가능한 경력 근로자의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으로 인해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
- 따라서 학교의 졸업 시기와 기업의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인한 인력수급의 시기적 불일치가 심화

○ 노동절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

- 경제구조가 고도화하고, 자동화 등 인력절감 기술이 급격하게 확산 보급됨에 따라 경제 규모의 팽창에도 불구하고, 고용은 그만큼 늘지 않아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의 고용창출 효과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 (참조 <표 4>)
- 노동절약적 산업인 IT 산업이 국내 산업의 주력 부문으로 성장함에 따라 산업구조 고도화가 될수록 실업률이 상승

<표 4> 2002년, 2006년 산업별 고용계수 변화율

산업별	서울	전국
전산업	13.0	10.4
농림 어업	0.9	0.8
광업	24.8	7.1
제조업	12.1	5.2
전기, 가스 및 수도사업	2.9	2.0
건설업	9.7	6.6
도매 및 소매업	19.6	31.2
숙박 및 음식점업	28.0	36.9
운수업	17.2	13.8
통신업	3.7	4.0
금융 및 보험업	5.6	7.7
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	11.6	12.3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10.8	9.8
교육 서비스업	22.1	26.0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	21.2	24.7
기타서비스업	14.0	22.5

주: 상기 수치는 2002년, 2006년 피용자수/경제활동별 지역내 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(10억)의 변화율
 자료: 통계청

○ 국내 기업들의 인수합병(M&A)으로 인한 신규 고용 유인 약화

- 인수합병은 은 인력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여유 인력을 발생시켜 신규 고용 유인을 약화시킴

2. 청년층의 의식 및 구직 선호도 변화

1) 고학력에 따른 눈높이 변화

- 학교급별 취업률 전문대, 대학원, 고등교육, 대학 순으로 나타남
 - 고등교육 및 전문대졸은 취업률이 타 졸업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이들 계층에서는 활발한 구직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는 한편, 대학졸업자는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
 -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문대 졸업자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취업 기대수준이 높은 대졸자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고시 및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기 때문으로 판단됨
 - 학력 간 구직행태 및 탐색 일자리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특성별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대졸 이상 청년층의 유희화를 막기 위해 교육-노동시장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정책이 요구됨

〈표 5〉 학교급별 취업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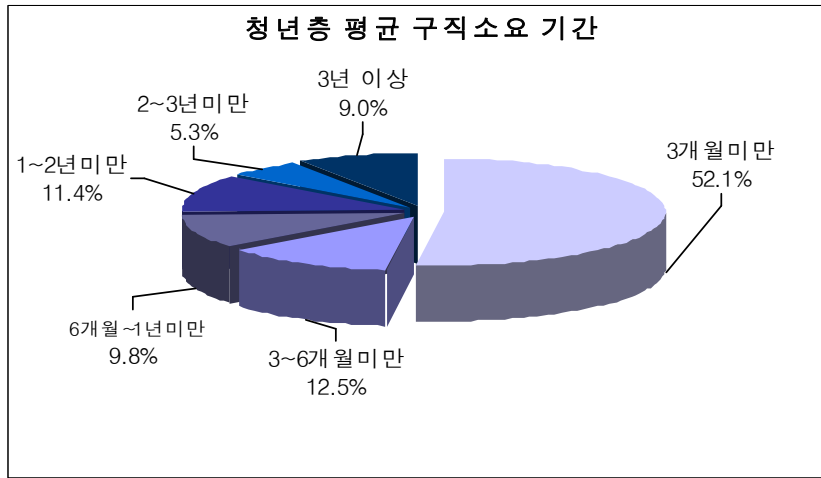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	2006	2007	2008
전문대	84.2	85.2	85.6
대학원	81.9	81.7	81.6
고등교육	75.8	76.1	76.7
대학원	81.9	81.7	81.6

자료: 2008 취업통계연보, 한국교육개발원

2) 청년층의 자발적 실업

-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개월
 - 학교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개월로 나타났으며, 6개월 이내 취업하는 비중은 12.5%이며, 2년 이상의 장기 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는 비중도 14.3%인 것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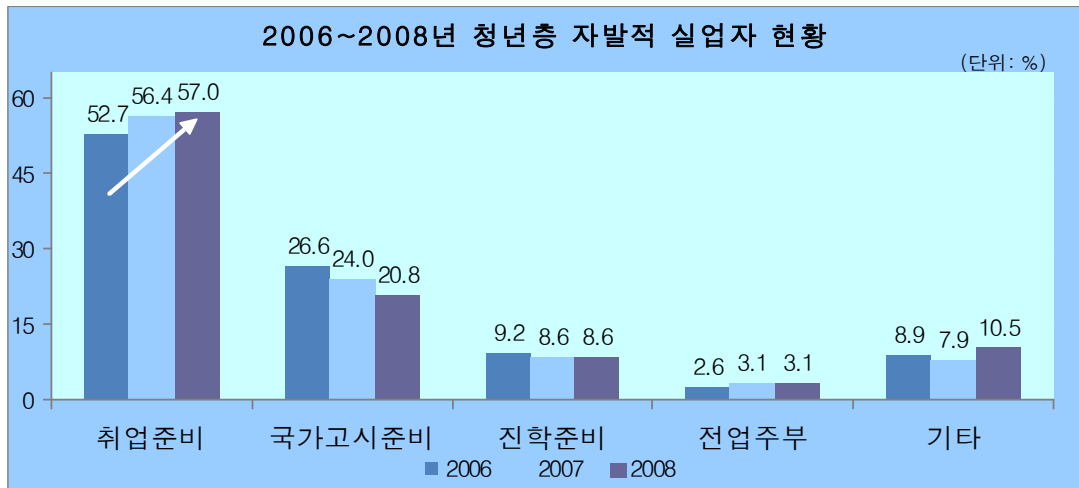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, 통계청

<그림 6> 청년층의 평균 구직소요 기간

○ 청년층 자발적 실업의 증가

-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자발적 실업(취업관련 시험 준비 및 구직 준비자)은 10.3%였으며 전년대비로는 0.4%p 증가하였음. 자발적 실업 중 일반직 공무원 준비자는 36.2%, 교원임용은 7.3%, 고시 및 전문직은 14.0%로 나타남
- 성별로는 일반직 공무원 준비자로 남자 38.7%, 여자 32.9%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남자의 경우 일반기업체가 61.0% 여자의 경우 25.4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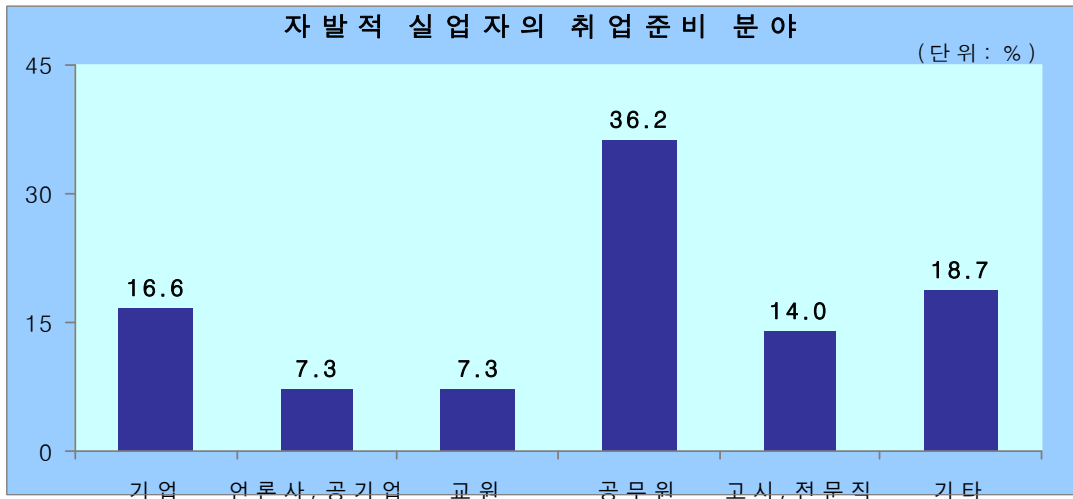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2008 취업통계연보, 한국교육개발원

<그림 7> 청년층의 평균 구직소요 기간

○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에 따른 자발적 실업

- 자발적 실업은 구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심화된 상태에서 나타난 것으로 취업 준비생의 상당수가 대기업과 공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을 위함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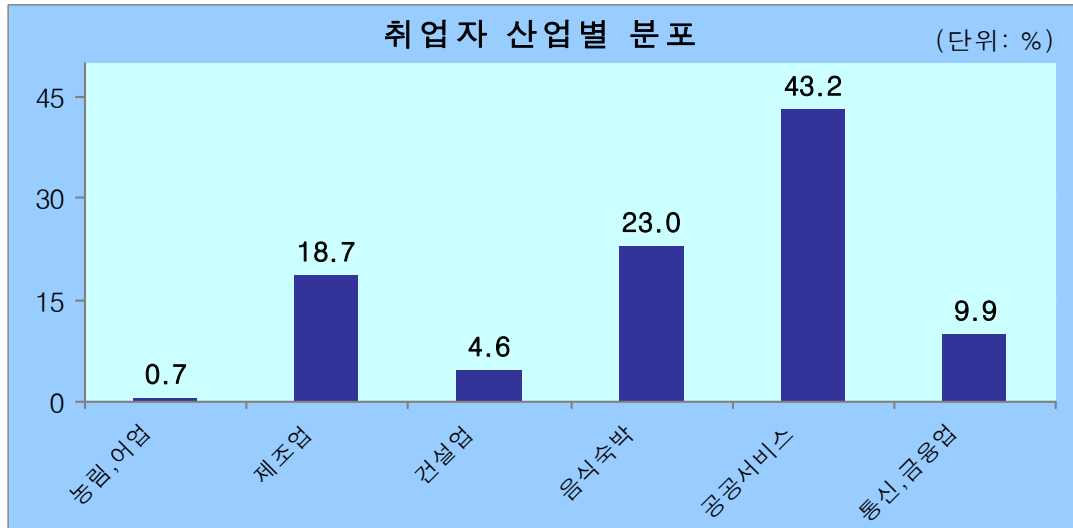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, 통계청

〈그림 8〉 자발적 실업자의 취업준비 분야

- 또한 청년층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위해 교육 및 훈련의 양으로 인적자본 가치를 높이기 원함으로서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보상을 원하지만 고학력화가 이루어지고 경기침체로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능력에 한계가 있어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상대적으로 어려움
- 따라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업기준에 맞는 일자리로 진입에 실패한 경우 당장의 구직과 하향취업을 통해 교육 투자 수익을 낮추기 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자발적 실업상태를 선택
- 그러나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진다면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에서 비바람직, 사회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고, 이는 일자리의 구성과 구직자 선호의 mismatch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
- 따라서 자발적 실업자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 마련과 중견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,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근로조건 및 임금격차 완화 등 장기적 대안 필요

3) 청년층 구직자의 선호 직업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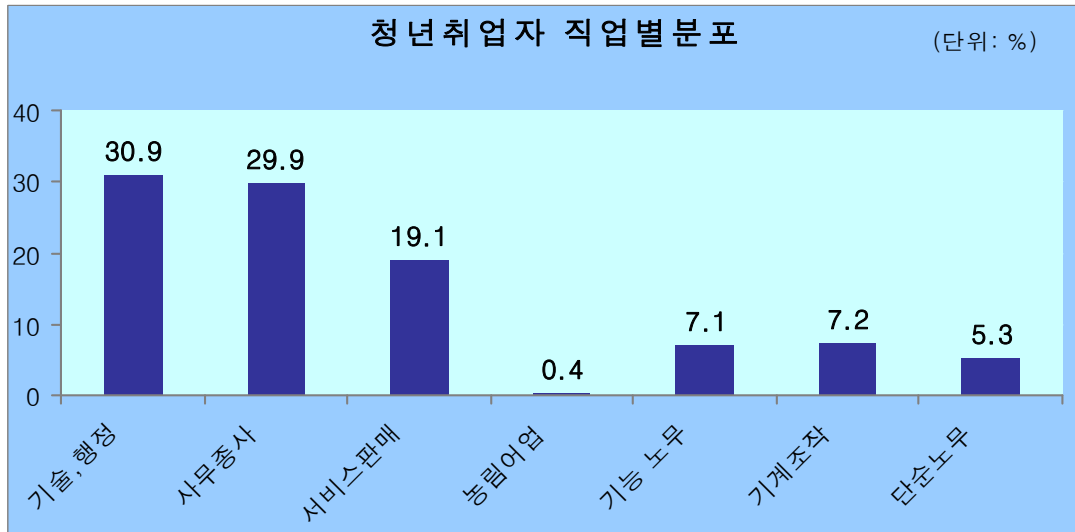
- 졸업 및 중퇴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도는 사업·개인·공공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43.2%로 나타났으며, 농림어업이 0.7%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



자료: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, 통계청

<그림 9> 청년 취업자들의 산업별 분포

- 직업별 분포는 전문기술·행정 관리자 및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청년의 고학력화로 인해 전문직 위주의 취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판매, 기능기계조작·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
 - 이는 제조업의 인력수요 감소로 볼 수도 있으나 편안하고 손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



자료: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, 통계청

〈그림 10〉 청년 취업자들의 직업별 분포

III. 서울시 청년실업 대응방안

-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각 부처간의 지속적인 중장기 정책 마련 시급
 -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경제, 교육, 고용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정책, 부처, 지역 간 연계 조정이 강화되어야 함
 - 청년실업 종합대책에 대한 범정부적인 추진 점검체계 구축하여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개선 요
 - 청년실업대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한국형 청년 실업대책의 마련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정책 수립, 실행, 효과에 대한 평가 연구사업 추진 필요
- 지역별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
 -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고용 및 실업통계를 구축하고 특히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고용 및 실업실태에 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
 - 계층별 패널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실업의 실태, 고용훈련의 효과, 실직자의 요구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고,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

- 고용시스템을 고용안정정보망이 워크넷 등 국가의 고용, 훈련, 직업정보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모색
-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체계적인 취업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훈련계획 수립
 -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인력의 수급에서 상당한 변화가 전개되고 있음. 이러한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인력수급 상황을 예측하고, 이를 토대로 중장기의 인력수급계획이 필요
 - 그러나 현 고용훈련 프로그램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기업정보 및 채용패턴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업-대학-학생간의 이해와 연계가 결여됨
 - 따라서 구인·구직자 상호간 적합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기업-대학-학생간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획일화된 고용훈련 프로그램에서 탈피 취업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고용훈련계획 마련

참고문헌

- 교육과학기술부, 200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
- 한국노동연구원,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
-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
- 인크루트, 올 하반기, 기업간 채용 양극화 악화 보도자료
- 잡코리아, 경력직 채용증가 현황 보도자료